

제5회 광주버스킹월드컵 오는 7-11일 5·18민주광장서 개최

전 세계 거리음악가들의 버스킹 축제가 올해로 광주에서 5번째를 맞는다. 이번 광주버스킹월드컵은 본선 경연 규모를 압축하는 대신 거리공연과 먹거리, 스트리트댄스 등 대중성을 확보해 독립적인 국제 음악축제로의 변화를 시도한다.

재단 예산 첫 운영...56개국 1천549명 참가 브랜드 인지도 향상
본선 8팀 압축...5일간 프린지 확대·스트리트댄스 신설 대중성 강화



제5회 광주버스킹월드컵이 오는 7-11일 ACC, 충장로 일원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왼쪽부터 지난해 개최한 광주버스킹월드컵 시민심사위원, 본선경연팀 무대, 수상자 크랙샷.

〈동구문화재단 제공〉

세계 거리음악가 광주로...버스킹월드컵 ‘독립축제’ 시험대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 동구와 광주특별자치시 동구문화재단은 오는 7-11일 5·18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하늘마당, 충장로 일원에서 ‘제5회 광주버스킹월드컵’을 개최한다.

올해 대회에는 56개국 535팀, 1천549명이 참가했다. 지난해보다 참가국은 14개국, 참가팀은 42개팀 늘었다. 예선 횟수와 본선 진출 규모, 상금은 축소됐지만 참가팀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대회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게 재단의 설명이다.

올해는 대회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처음으로 재단 예산을 중심으로 행사를 운영하고 별도의 감독단 없이 실무진이 기획과 운영 전반을 맡았다. 기존보다 예산을 압축하고 광주에 초청하는 본선팀도 8팀으로 줄이는 대신, 경연 외 프로그램인 ‘버스킹 프린지’를 닷새간 확대했다. 본선 8강과 결선은 각각 10일과 11일에 집중한다.

본선에는 대한민국·멕시코·일본·프랑스·호주 등 5개국 8개팀이 오른다. 국내에서는 부에나모벤토, 광주 출신 유하은의 Hooombamba, 콤파겐즈, 슬로우진이 출전한다. 해외에서는 멕시코 BuenRostro, 일본 suola, 프랑스 Valerie Ekoume, 호주 SAJJIE가 무대에 오른다.

경연이 없는 기간에는 충장로 전체가 거리공연장으로 변한다. 7일 테타너스 초청공연과 버스킹 프린지를 시작으로 8일 외국인 버스킹, 9일에는 하루 동안 스트리트댄스 배틀이 펼쳐진다. 재즈와 록, 포크, 인디팝, 클래식, EDM은 물론 마술·마임·서커스·저글링 등 난버벌 공연도 선보인다.

11일 결선에서는 광주음악창작소 연계 공연과 함께 집계 시간 동안 ‘포장마차’, ‘취하고 싶다’로 알려진 가수 황인욱이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광주버스킹월드컵 수상팀인 록밴드 크랙샷도 초청된다.

특히 대중성을 강화했다. 5·18민주광장에 15

개 푸드트럭을 배치하고 ACC 하늘마당에는 지역 베이커리와 카페 등이 참여하는 팝업을 마련한다. 먹고 쉬면서 음악을 즐기는 ‘피크닉형 음악축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광주버스킹월드컵의 장기적인 방향도 달라진다. 그동안 추억의 충장축제와 같은 기간 개최돼 하나의 연계 행사처럼 인식돼 왔지만 앞으로는 독립적인 국제 음악축제로 브랜드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충장축제와 공동 운영한 뒤 이듬해부터 재단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창현 광주특별자치시동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상금과 본선 규모를 줄였는데도 참가팀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데서 자체 브랜드로 승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앞으로 충장축제에서 벗어나 광주 도심 곳곳에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버스킹을 만날 수 있는 국제 버스킹 음악축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오복기자

가곡 선율로 만나는 한 사람의 사랑 이야기

예술의전당 소극장 6일
소프라노 임현진 독창회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 예술의전당은 오는 6일 소극장에서 소프라노 임현진 독창회 ‘사랑, 시간 속의 여음(餘音)’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우리말과 우리 정서가 담긴 한국 가곡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사랑이 시간 속에서 변화하고 깊어지는 과정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풀어내는 무대다.

이번 독창회는 성악가의 기량과 개별 작품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독창회 형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공연 전체를 관통하도록 구성했다.

설렘에서 시작된 사랑이 기다림과 그리움, 외로운 독백의 시간을 지나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감정을 각각의 한국 가곡에 담아 하나의 서사로 연결한다. ‘따뜻한 한 여성의 사랑’, ‘시린 기다림과 이별에 대한 수용’, ‘사랑이 구속이 아니라 자유임을 아는 여성의 사랑 이야기’는 이번 공연의 중심이다.

프로그램 역시 이러한 감정의 흐름에 맞춰 ‘첫사랑(Gentle thump)’, ‘기다림(Naive)’, ‘독백(A lonely rhythm)’, ‘다시 처음(To the Toni c)’의 네 장면으로 구성된다. 또 우리에게 익숙



한 한국 가곡과 현대 창작가곡을 함께 배치해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한국 가곡의 아름다움과 문학적 감수성을 한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오복기자



“사라지는 것과 남겨지는 것”

장성 아인미술관, 18일까지 노여운 작가 개인전

보존 행위 ‘유리병’ 오브제로...흔적·시간 되새겨

아인미술관(장성군 장성을 미락단지 길 8 오피먼트)은 오는 18일까지 노여운 작가 개인전 ‘살아 있거나, 멈춰있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26 전남문화재단의 예술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래된 공간에 쌓인 사람들의 흔적과 자연의 시간을 바라보며 ‘사라지는 것’과 ‘남겨지는 것’ 사이의 감각을 섬세하게 풀어낸다.

노여운 작가는 ‘보존’이라는 행위가 반드시 영원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환기하며, 공간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을 ‘유리병’이라는 오브제를 통해 표현한다.

소중한 것을 담아두는 그릇이자, 쉽게 잊히지 않도록 기억을 간직하는 도구인

유리병을 통해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 안에 머물렀던 시간, 그리고 감각의 흔적을 붙잡는다.

무엇인가를 담아두고 바라보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고, 공간은 변하며, 기억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남는다는 작가의 시선을 담았다.

아인미술관 관계자는 “노여운 작가의 작업은 특별한 사건이나 극적인 장면보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공간과 사물, 그리고 그 안에 축적된 시간에 주목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장소와 사물, 그리고 사라져 가는 것들을 천천히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CBS 라디오

아침 시사의 새로운 중심

박성태의 뉴스쇼

월~금 07:10~09:00

오늘 아침 가장
똑똑한 유튜버

FM 98.1 MHz

CBS 표준FM

CBS RAINBOW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YouTube